

## 소매업 경영동태

슈퍼마켓과 편의점은 대표적인 소매업에 속한다. 슈퍼마켓이 고전적인 소매 유통형태라면 편의점은 현대적이다. 수요자 위주의 환경으로 인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두 경쟁자의 경영 동태는 베이커리 업체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이에 따라 본지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근 발행한 '94년도 소매업 경영동태 조사보고' 중 슈퍼마켓과 편의점에 관련된 내용을 요약해서 실는다.

규모가 50평 이상인 슈퍼마켓을 대상으로 표본조사한 결과, 94년도 슈퍼마켓의 점포당 매출은 15억 9,960만원으로 93년(14억 9,740만원)에 비해 6.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지방이 7.3%, 서울이 5.1%로 지방의 매출증가율이 높았다. 취급상품 중 수입상품의 매출이 크게 늘어 5,204만원의 매출실적을 올렸는데, 이는 전년보다 73.7%나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점포의 대형화 추세와 맞물려 상품구색의 다양화 차원에서 음·식료품, 생활용품 등을 중심으로 수입상품의 비중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로 꼽았고 시설개선(20.9%), 상품구색 다양화(17.2%), 서비스개선(14.5%), 영업경비의 절감(11.8%)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이 편의점과의 경쟁을 의식해 시설개선을 제일 중시한 반면 지방지역은 점포규모확대를 제 1순위로 두었다.

10대 편의점 업체 중 규모가 18평이상 70평이하인 점포를 대상으로 표본 조사한 결과, 94년말 현재 전국의 편의점 점포수는 1,710개로 전년도에 비해 339개 증가(24.7%증가)했는데 92년 147.7%, 93년 98.7%에 비해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이 신규업체 2곳을 제외하면 수치는 더욱 떨어지

는데 앞으로도 신규점포는 계속 떨어질 전망이다. 신규업체들의 진출이 점포증가분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편의점 업체가 고정투자비의 과다

로 인해 부채규모가 눈에 띄게 상승했기 때문인데, 재무구조를 살펴보면 부채가 531억 7,070만원, 자본은 8억 6,140만원으로 매우 취약한 형편이다. 운영형태를 살펴봐도 이러한 사정을 엿볼 수 있다. 직영부분이 대폭 축소되고 가맹점의 출점비중이 전년보다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가맹점매출액은 전년보다 4.5% 상승한 46.9%로 나타났다.

### 편의점, 전체 매출액 증가했으나 영업이익률 오히려 감소

한편 10대 편의점의 전체매출액은 7,120억원으로 93년(4,734억) 대비 50.4%가 증가했는데 이는 점포수 증가가 주된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점포당 매출액이 5억 5,340만원으로 전년 대비 4% 증가에 그쳤기 때문이다. 또한 매출총이익률은 증가했으나 영업이익률은 오히려 0.8% 감소한 8.5%로 떨어졌다.

정보화 실태를 보면 점포당 컴퓨터대수 및 POS터미널수는 각각 0.9대, 2대로 유통정보화를 위한 기본장비는 일정 정도 구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화의 구축은 점포당 평균재고액의 감소(2,310만원으로 6.9% 감소)와 상품로스율의 감소(1.3%로 0.3% 감소)로 효과가 나타났다. 유통정보시스템의 도입 목적에 대해서는 고객정보의 수집을 가장 우선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슈퍼마켓이 점포환경개선을 주요 목적으로 대답한 것과 차이를 보이는데, 편의점의 정보화 단계가

단순한 매장관리에서 고객정보를 이용한 마케팅 전략 수립으로 진입했음을 뜻한다.

향후 경영전략으로는 본부가 우선과제로 점포망 확대(39.9%), 유통정보 강화(25.5%), 유통전문인력 수급(25.5%)을 꼽았고 각 점포는 종업원 서비스의 향상(47.4%), 상품구색의 다양화(42.1%)를 과제로 설정했다. [계]

# 슈퍼, 수입상품 비중 늘고... 편의점, 점포증가율 줄고

## 94년 슈퍼마켓, 편의점 사업 보고서

슈퍼마켓, 편의점과 경쟁 의식 규모 확대를 우선순위로 꼽아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영업경비(판매와 일반관리비)는 1억 6,440만원으로 전년보다 8.5%가 증가했는데 경비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인건비로 43.3%를 차지했고, 지급임차료(14.1%), 수도광열비(11.7%)가 뒤를 이었다. 지급임차료는 서울이 14.1%에서 16.2%로, 지방이 12.6%에서 13%로 늘어나 영업경비부담을 가중시킨 원인으로 지적됐다. 한편 순수한 영업활동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매출총이익에서 영업비 및 영업의 이익을 제외하여 산출되는 영업이익률은 서울과 지방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매입, 매출관리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척도인 상품로스율은 2%로 다소 높은 수준이었다.

정보화 실태를 살펴보면 컴퓨터 보유 점포는 38.6%, POS기기는 22.9%로 나타났고, 이를 보유하지 않은 업체 중 향후 설치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 컴퓨터의 경우는 22%, POS기기가 37.7%로 POS기기 설치를 더 요구했다. 정보시스템 도입 목적에 대한 지역별 조사에서는 서울이 고객유인을 위한 서비스 제공의 목적에 강했고 지방은 매장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경비절감의 효과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향후 경영전략으로는 점포규모 확대(23.7%)를 최우선 과제로

94년도 슈퍼마켓, 편의점 수익 및 생산성 지표

슈퍼마켓			항목	편의점		
93년	94년	증감		93년	94년	증감
14.1	14.4	0.3% 증가	매출총이익률(%)	26.4	27.2	0.8% 증가
7.3	7.6	0.3% 증가	영업이익률(%)	9.3	8.5	0.8% 감소
2.0	2.0	-	상품로스율(%)	1.6	1.3	0.3% 감소
422.6	451.5	6.8% 증가	1일 평균 매출액(백만원)	145.8	151.6	4.0% 증가
31,943	33,995	6.4% 증가	1일 1평당 매출액(원)	48,612	50,708	4.3% 증가
556,069	578,790	4.1% 증가	1일 종업원 1인당 매출액(원) <sup>1)</sup>	540,132	459,444	14.9% 감소
4,748	5,130	8.0% 증가	고객 1인 1회 구매액(원)	1,870	1,872	0.1% 증가
890	880	1.1% 감소	1일 이용 고객수(명)	780	810	3.8% 증가
12.9	13.2	0.3회 증가	상품 회전율(회)	23.0	25.7	2.7회 증가

주1) 종업원수는 점포의 사용종사자 기준